

# David Bauer 박사, 귀납적 성경 공부, 강의 27, 야고보서 4:13-5:20

© 2024 데이비드 바우어와 테드 힐데브란트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27회차  
야고보서 4:13-5:20

입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의 구조, 즉 전체 책의 계획을 기억하고 이해하기 위해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작업해 온 개별 구절이 사물의 거대한 계획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러분은 우리가 1장 2절부터 1장 27절까지에서 저자가 매우 간략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여러 가지 주요 문제를 설명하는 선언과 지침 내에서 책에 대한 일종의 서곡을 가지고 있다고 제안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혜와 말씀이라는 두 가지 자원을 통해 시련과 유혹과 잠재적인 속임수를 이겨내고 이 책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삶의 승리를 2장 1절부터 5장 18절 또는 5장 20절까지에서 그는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사상은 삼중 운동에 따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전에 관한 논증과 권고의 과정에서 그 사상을 구체화합니다. 2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지 않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로 베풀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우에 관한 논증과 권고를 신앙과 행위에 대한 신학적 논의와 함께 다룬다. 여기서 강조점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복종, 편파성 거부, 수동성입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4장 12절까지에서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형제애에 대한 복종에 초점을 맞춘 전쟁하는 정욕에 맞서 싸우는 투쟁에 관한 논증과 권고를 봅니다. 물론, 이러한 전쟁적인 열정은 실제로 무질서한 말과 무질서한 욕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더러운 말과 쓰라린 질투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분, 즉 그리스도인 삶의 도전에 관한 이러한 논쟁과 권고의 마지막 주기로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행동에 대한 인내심 있는 복종에 관한 논쟁과 권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활동에 복종하고 자급자족과 자기 통치를 거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4:13부터 5:18까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또는 제가 이 조사를 볼 때 언급했듯이 5:19부터 5:20까지의 기능이 최종 권고인지 여부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 전체와 동등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제임스가 여기에서 가르치고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과 그가 지금 독자들에게 하도록 격려하거나 지시하는 일을 비교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5장 19절부터 5장 20절까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1장 2절부터 5장 18절까지의 내용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5장 19절부터 5장 20절까지가 5장 13절부터 5장 18절까지와 관련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수행한 5:13부터 5:18 또는 5:20까지의 자세한 분석을 다시 불러오면 이 모든 자료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주장과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행동에 인내심을 갖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삶, 우리의 삶의 경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주로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제 생각엔 5:6에서 5:7 사이가 가장 큰 브레이크가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에서 자급자족에 대한 권고를 발견합니다. 이 자료는 문단 시작 부분(4:13-5:17)과 다음 문단 시작 부분(5:1-6)에서 "이제 오라"라는 문구가 반복되어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지금와.

4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자여 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5:1에서 부자 여러분, 지금 오십시오. 그것은 문구의 반복 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자급자족에 대한 훈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4:13부터 5:17까지와 5:1부터 6까지의 두 문단을 함께 묶는 것은 이 문단이 지금 오라는 문구로 시작될 뿐만 아니라 재물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4:13부터 5:17까지는 상인들에게, 5:1부터 6까지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러나 5:7부터 20까지는 고난 받는 자들에게 훈계를 줍니다.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격려를 받은 사람,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격려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고통 가운데.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경우,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권고는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려는 유혹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5장 7절부터 20절까지에서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훈계에서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도록 유혹에 빠진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4:13부터 5:6까지에는 두 개의 하위 단위가 있습니다.

4:13부터 17까지 그리고 5:1부터 6까지. 여기에서 이 진술들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하는 자들아,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성읍에 가서 환난 중에 가서 일 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며 이익을 얻으리라 하는 자들아. 반면에 당신은 내일에 대해 모릅니다.

그것은 실제로 대조를 포함합니다. 즉, 다음날의 현실에 대비한 발언과 계획에 대한 자신감이다. 반드시 알 수 없는 미래.

그리고 그는 물론 14절을 확증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대신에, 당신은 말해야 하며, 물론 여기서 그는 그들이 말하는 것과 문제를 대조하고 그들이 말하는 문제에 대한 실증을 대조합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이 말해야 하는 것과 대조합니다. 도리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니라 그런 다음 그는 그것으로부터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 16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교만함을 자랑합니다.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이는 이 일반 원칙에 의해 더욱 입증됩니다. 누구든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것이 죄입니다.

물론 그들은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마을에 가서 그곳에서 1년을 보내고 장사를 하고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합니다. 내일에 대해 알아라.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따라서 달리 자랑하는 것은 고의적인 불법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죄악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가 돈이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그가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동네에 가서 일 년을 지내며 장사하여 이익을 얻자. 그는 여기서 부유한, 어느 정도 부유한 상인, 사람들, 그리고 도시 사람들, 즉 도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내 생각에는 그가 교회 내의 사람들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또한 17절에서 그가 말한 내용에서도 암시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옳은 일을 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음의 현실과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자들 사이에는 지식이 존재합니다.

뜻하는 명왕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는 여기서 부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제임스가 비기독교적인 부를 언급하기 위해서만 명왕성 또는 부자 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는 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언급하기를 원할 때 그들의 부를 설명하지만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단어는 여기에 없기 때문에 눈에 띄니다. 반면에 5 :1에서는 부자여, 여기 있습니다. Plousioi가 거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부자가 되십시오.

플루시오이(Plousioi)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그가 교회 밖에 있는 부자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자급자족에 대한 훈계에 관한 여기서의 경고는 삶의 불확실성과 짧음, 즉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비축과 오만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는 실제로 당신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빛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빛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복종하며 지금 사는 삶을 의미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자. 대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이것을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뜻하신다면 마음속 깊은 헌신과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현실을 포용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며, 우리의 미래가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해 있다는 현실을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 이제 나는 교회 환경에 있는 몇몇 사람들, 내가 어렸을 때나 청년 시절에 자라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말했던 어떤 나이든 성도들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편지를 쓰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쓸 때에도 주님의 뜻이라면 종종 DV, Deo Volente라는 글자를 포함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나는 단순히 공허하고 경건한 몸짓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종류의 훈계를 실천하는 방법이자 상기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지주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니면 적어도 여기서의 지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것이 이 책에서 실제로 비기독교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기독교인 부자들을 언급하는 수사적 실천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사적 장치에 가깝습니다. 자, 부자들이여, 오라, 너희에게 닥칠 비참함을 인하여 수확하고 울부짖으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처럼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당신은 마지막 날을 위해 보물을 쌓아 두었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너희가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느니라.

추수꾼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느니라. 당신은 이 땅에서 사치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너희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당신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저항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4:13부터 17까지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당신은 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그들을 명백히 부자로 언급하고 있으며, 그가 그들을 묘사하는 방식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형제 관계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는 끔찍한 종말 심판의 확실성과 실제로 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강탈하는 삶의 패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상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들은 도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제재, 그들에 대한 경고의 영장에는 미래에 대해 거만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책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 도덕적 의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책임, 사회적 책임은 그가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강조한 것처럼 죽음에 직면해서가 아니라 종말론적 심판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라, 너희 부자여, 너희에게 닥칠 불행으로 인해 울고 통곡하라. 그러나 그가 미래의 비참함과 종말의 형벌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주목하십시오.

그는 말세의 형벌의 실상이 지금 이 세상 생명의 부패와 부패를 통해 너희에게 증거되고 있다고 말씀하신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처럼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즉, 우리가 현생의 자연적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인한 부의 쇠퇴와 취약성은 부자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미리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당신이 이 세상에서 부유한 것조차도 부패하고 손실되기 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 시대의 자연적 과정에서 물질적 소유 측면에서 경험하는 손실은 손실, 즉 미래의 종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손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마지막 날을 위해 보물을 쌓아 두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는 당신이 지속될 보물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당신은 마지막 날을 위해 실제로 보물을 쌓아두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신을 파괴할 독의 보물 같은 존재죠.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들의 범죄에 대해 설명합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샅을 주지 아니하고 샅을 주지 않고 소리 지르느니라.

그건 그렇고, 그가 사기로 갚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이 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갚지 않거나 보류하기 위해 사용한 일종의 까다롭고 영리하며 매우 불공정한 법적 관행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 이것은 그가 1:26에서 말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를 억압하는 자는 부자가 아니냐?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너희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샅을 주지 아니하고 너희가 주지 아니한 샅이 소리 지르니 이는 이에 대하여 매우 생생하게 말함이니라.

추수꾼들의 부르짖음이 만군의 여호와, 그의 강한 군대를 거느린 여호와와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는 이 땅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느니라.

당신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론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강조되는 것은 직원들을 속이는 사업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일하는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들의 노동력을 빼앗고 훔칩니다. 물론 이것은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주석은 아모스서 등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의 주님은 이런 것을 절대 미워하시고, 절대 미워하십니다. 이는 확실하고 엄중한 판단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구약성경, 특히 선지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그는 특히 5절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사치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다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희는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그는 또한 그들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또한 판단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노동자들의 품삯을 착취하는 일에 대해서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네가 가난 가운데서, 궁핍 중에도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살았으며, 네 모든 재물을 네 자신과 네 즐거움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는 사실을. 2장에 따르면 궁핍한 자들이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죄요 마지막 날에 무서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자니라. 이제 그는 내가 말했듯이 5장 7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과 행동에 복종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더 이상 넉넉한 자에게 복종하지 말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대조 요소가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인과관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그가 부유한 압제자들에 관해 말한

것부터 5장 7부터 11절까지에서 그가 부유한 압제자들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관해 말할 것까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인내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7절은 내가 말했듯이 7절에서 추수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가 하신 말씀과 그 부르짖음이 만군의 여호와와 귀에 들렸느니라. 그래서 그는 분명히 여기 7절과 그 다음 구절에서 특히 그가 여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묘사하고 있는 부유한 압제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매크로투메오 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인내하십시오. 이것이 실제로 기본적인 권고입니다. 그는 9절에서 또 다른 권면, 즉 조화된 권면을 할 것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라. 그분이 수확하는 사람들, 즉 농업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이 이해하는 언어에 따라,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에 따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기다립니다. 땅의 귀한 열매를 주목하십시오. 이는 기다려온 것이 기다릴 가치가 있고, 기다릴 가치가 있으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땅의 귀한 소산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기까지 오래 참음이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으니 너희도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제 그것은 긍정적인 권고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권고로 나아갑니다.

인내심을 갖는 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러한 인내심을 행사할 때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형제를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가장 큰 규모를 너희가 변호하고 땅의 귀한 열매를 받는 사건이 아니라 너희가 심판을 경험하는 기회로 경험하도록 지금 행동하도록 주의하라.

당신을 압제하는 자들이 정당하게 경험하게 될 심판. 보라, 재판장이 문 밖에서 계시니라.

그리고 다시 11절에 있는 일종의 하위 권면으로, 형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예로 들어 동기 부여 측면에서 본을 삼으십시오. 한편으로는 불평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게 하는 동기이자 그에 대한 교훈이기도 한 해피엔드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행하기 위한 예와 동기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예를 제시합니다. 잠시 동안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고, 잠시 동안 당신을 억압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이런 종류의 억압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고를 따르는 것은 정확히 어떤 모습입니까? 그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 곧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일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선지자들이 너희를 위하여 본을 보여 준 것임이니라. 직업. 즉, 성경적인 예가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잠시 멈추고 기독교 교회에서 구약의 기능 중 하나인 구약은 교회 내에서 기독교 성경의 일부이며 야고보가 여기서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말론적 사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구약성서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구약성서 자체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결론을 앞서 지적합니다. 구약의 사람들, 족장들, 현자들, 선지자들, 의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지적하듯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여행 중이었으나 그 끝은 경험하지 못하였느니라.

구약성경 전체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위대한 종말론적 행위를 기다리는 모델이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행동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생각하라. 보라, 굳건한 사람들을 우리는 행복하다고 부른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은 구약성서의 선지자들과 욥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뜻을 보았으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도다 자, 여기서 투덜거리는 것에 대해 이 사업에 관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원망하지 말라. 다시 한번 그는 연설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5장 7절부터 18절까지를 하나로 묶는 것 중 하나는 연설에 대한 끊임없는 언급입니다.

여기서는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12절에서는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에서 그는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에는 말이 포함됩니다. 인내심을 거부하고 비기독교인 범죄자들에 의해 억압받는 사람들의 인내심을 가지라는 권고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의 일부는 그들의 좌절감과 상처를 없애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불평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약함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에게 저항할 수 없는 그들의 무능력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습니다(6절).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 즉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공격합니다. 그는 물론 이것이 당신이 행동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부적절한 말이라는 개념을 꺼냅니다.

1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찌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옳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그는 연설에 관한 이 전체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으며, 여기서 그가 말하는 증거가 연설에 관한 이 전체 사업의 절대적으로 핵심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물론 여기서 12절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12절이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사실, 자급자족에 대한 훈계, 고통에 대한 훈계, 즉 겸손하게 복종하라는 훈계는 여기 내 도식과 특별히 잘 맞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겸손히 따르십시오. 그렇다면 이 욕설이 그것과 정확히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Ralph Martin과 같은 평론가들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욕설에 관한 금지 사항을 언급한 이유는 실제로 억압에 대한 반응과 관련이 있으며, 욕설이 매우 매우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압제자에 대한 복수심, 압제자에 대한 복수의 맹세, 그들에 대한 복수의 맹세 등.

법적 절차를 조작하여 사기로 임금을 강탈하려고 시도할 때 법정 절차 등에서 강제로 맹세를 해야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경우가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욕하지 말라는 점에 관해 그가 말한 내용은 그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특정한 상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대조를 기억합니다. 대조가 있습니다. 5장 33절에 두 가지 맹세에 관한 예수님의 지시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사람에게 거짓 맹세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을 여호와께 지키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왕의 성임이니라 또 네 머리로 맹세하지 말라 네가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느니라. 당신이 말하는 것을 단순히 예 또는 아니오로 하십시오.

이보다 더한 것은 악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실제로 여기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에서 맹세의 문제는 당신이 맹세하는 것은 실제로 당신의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에 속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욱설에 반대하는 한 가지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는 37절에서 맹세의 또 다른 문제는 그것이 일반적으로 진리에 대해 일종의 느슨함을 실제로 가정하므로 당신의 말이 당신 자신 너머의 어떤 것에 의해 맹세하는 정도까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맹세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허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암시적이다. 자신이 말하는 것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맹세해야 한다는 사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의 진실성을 단순히 말하는 것만으로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혀의 사용에 관한 야고보의 연설 전반에 걸친 이 모든 논의에서 야고보는 여기에서 이것이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려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내 형제들아 맹세하지 말라고 소개합니다. 말에 관한 야고보의 관심의 중심에는 말의 완전성, 말의 완전성이라는 전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말했듯이 13절에서 착취자들에게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로 부터 인내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중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리라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으로 인한 그림자도 없으심을 더욱 확신하였느니라 .

그래서 다시 그는 그것을 포착하고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해주세요. 쾌활한 사람이 있나요? 그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라.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그 사람의 적절하고 지속적인 자세라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기쁨이 넘치고, 즐겁고, 풍요롭고, 찬양을 노래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고통에 대한 이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정말로 질병에 집중하고 싶어합니다.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게 하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가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 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12절의 내 형제들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해주세요.

쾌활한 사람이 있나요? 그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라. 너희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물론 이것은 실제로 고통의 중요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특히 현대 의학의 이점이 없었기 때문에 질병이 종종 매우 고통스러웠던 오늘날보다 고대 세계에서 훨씬 더 그렇습니다. 안도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종 치명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질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역사적 배경으로 볼 때 질병에 대한 낙인이 있었습니다. 질병에는 낙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은 질병 당시에 해당했으며, 물론 그 사람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여기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만성 질환자일 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자라면 급성 질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병자를 고치는 일의 일부는 병자들이 소외되었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을 겸손히 돌보시며, 예수님께서 병자를 만지시고, 병자들에게 다가가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자의 필요를 수용하고 목인하는 것은 질병 등에 따른 사회적 낙인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큰 겸손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들 사람들이 겪는 실제 고통의 매우 중요한 측면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구절이 병자를 위한 기도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제 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인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기름은 일종의 약용 가치, 일종의 약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종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기름부음이 그 기름의 약효를 위해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 치유와 관련된 기름을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했다는 것은 실제로는 치유의 종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을 통해 주님께서 친히 이루실 치유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말입니다. 신약성서의 다른 곳에서는 치유가 때때로 구원이라는 용어로 묘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께서 사람을 고치신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소조(sozo) 라는 용어로 묘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장 등의 측면에서.

그리고 여기서 이런 육신의 치유에 대하여 구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는 일종의 종말의 구원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인류를 속박하고 있으며 왕국이 도래해야만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던 우주 악의 측면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유대인 집단에서 질병이었습니다. 즉, 내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의 이 악한 시대에 유대인들이 채택한 그 두 가지 도식은 질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악한 시대에서 받아들인 것은 우주적 악으로 특징지어진다. 즉, 세상은 악의 속박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악은 귀신들림, 불결함, 불의, 사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질병에. 왕국의 도래, 왕국의 해방 또는 구원에 포함된 것 중 일부는 육체적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육체적 건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치유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측면, 즉 그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루려고 오신 마지막 때의 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가 구원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 치유를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육신의 질병은 악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 질병에서 일어나는 일은 치유, 육체적 치유 등에 대해 말하는 일종의 구어체 방식입니다.

egeiro, 일으키기 에 관해서는 일종의 모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언어도 마지막 때의 구원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신약에서 종종 왕국의 마지막 도래, 왕국의 완성, 왕국의 마지막 도래와 함께 올 구원 또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구원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성취. 그리고 일으킴에 대한 언급은 물론 내가 말했듯이 이것은 종종 병상에서 일으킴을 의미하는 구어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일반적으로 부활에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병든 사람이 지금 육신의 병은 고침을 받지 못할지라도 교회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이런 병에서 구원을 받게 되기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육체적 치유는 실제로 마지막 날에 몸의 부활과 함께 일어날 완전한 치유, 곧 치유를 향하여 머리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면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야고보가 어떤 경우에는 죄의 결과로 질병이 올 가능성을 인정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아픈 사람의 치유에 수반되는 것은 애초에 이 질병을 초래한 죄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3급 조건문을 사용합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 아니라 1급 조건문이 사용된 경우와 같은 것이지만, 3급 조건문은 그가 죄를 지었다면 다음을 나타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죄가 이 모든 일의 일부였다면 그는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는 매우 모호한 방식으로 치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육체적 치유와 죄 용서에 관해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헬라어 어형변화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가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복수형으로 당신을 고용했다는 사실은 그가 단순히 아프거나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개인의 치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치유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공동체에 죄가 있으면 공동체 안에 질병과 고난이 있게 됩니다. 즉, 공동체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죄악적인 행동은 공동체 전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지역 사회에 질병, 일종의 질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개인에게는 개인의 치유를 위한 공동체와 공동체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동체도 기업의 건강을 위해 개인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제 그는 의인의 기도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기도에 대한 이러한 개념을 입증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물론, 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시점에서 그가 실제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넓은 맥락에서 그는 책의 시작 부분인 1장 5절부터 8장까지에서 분명히 밝혔던 응답받는 기도에 관한 원칙으로 돌아가서 개인의 태도, 특히 신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기도에 꼭 필요한 사람, 즉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또한 4장, 특히 3절에서 기도에 관해 말씀하고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임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응답받는 기도, 효과적인 기도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다시 돌아옵니다. 의인의 기도는 그 효과가 크며, 응답받는 기도에 필요한 인간의 조건을 상기시켜 준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16절의 의인의 기도와 그가 6절에서 말한 것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당신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너희가 의인을 죽였으나 그가 너희에게 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가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권력이 부족하고 억압에 취약한 것과 그러한 종류의 가난과 의로움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절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할 때 그는 단지 의, 즉 의,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기도 응답의 열쇠임을 제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억압받는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가난한 데서, 궁핍한 데에, 취약한 데에, 억압받는 데에 큰 힘이 있느니라. 즉, 당신이 억압을 받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다고 해서, 당신이 권력자들과 함께 설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그가 17절에서 엘리야에 관해 말한 내용에서 암시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품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또한 취약했습니다. 그도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론 열왕기 상하의 엘리야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는 억압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의 기도를 무력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고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육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 에 관해 그가 말한 내용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석 달, 몇 년, 여섯 달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5.7에서 사용한 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는 땅의 귀한 열매를 바라고 있느니라. 이제 그는 18절에서 말합니다. 땅은 엘리야의 기도 에 대한 응답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이번에도 이것은 그가 엘리야에 관해 말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땅과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가 의로운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억압받는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가난합니다. 하지만 특히 자원과 권력 면에서 가난합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께 무력하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당신의 무력함은 실제로 당신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신의 기도가 전능자에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는 물론 19절부터 20절까지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고난에 대한 훈계와 관련하여 그가 말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절부터 20절은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의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손실, 즉 믿음의 상실과 진리에서 돌아서는 고통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된 자를 진리에서 떠난 자를 누가 돌아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 곧 죄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요 허다한 죄를 덮으소서.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는 이 문구는 아마도 잠언 10장 12절에 대한 암시일 것입니다.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허다한 죄를 예방하고 미래의 죄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장차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 주소서.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야고보가 계속해서 해왔던 일, 즉 진리에서 멀어졌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책 전체의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아심이라. 그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 기독교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며 특히 도덕적, 영적 방향이라는 사업 측면에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책을 끝맺습니다.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손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진리에서 방황하는 죄인을 다시 데려오고, 그 죄인을 그의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진리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할 때, 2장 19절을 생각하면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즉, 삶, 삶의 길, 삶의 방식을 채택한다는 의미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길의 오류, 즉 유대인의 도덕적 교훈에 있는 두 가지 길인 주의 길과 죄의 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진리에서 방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베푸시는 하나님의 헌신 안에서 하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완전히 포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종의 믿음과 확신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 James는 이것이 다양한 문제와 다양한 오류를 초래한다는 점을 줄곧 지적해 왔습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고립된 죄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반응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공동체에 있었거나 계속 공동체에 속해 진리에서 벗어나 공격적이고 불쾌하며 명백히 잘못된 삶을 사는 공동체 내의 다른 누군가에 의해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분리나 혐오의 반응이 아니라, 그 죄인을 그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참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임스가 이 책을 마무리하는 방식입니다. 강력한 책이자 수세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그것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귀납적 성경 공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 Dr. David Bower입니다. 27회차 야고보서 4:13-5:20입니다.